

# 박현주 '글로벌 베팅' 재가동... 미래에셋, 日·호주 해외 확장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

해외법인 이익 급증 확장 가속  
日 WM·호주 연금시장 공략  
9년 만에 신규 해외법인 추진  
홍콩 디지털자산 사업 개시  
미래에셋 3.0 전략 시동



박현주 회장이 주도하는 미래에셋증권이 해외 실적을 기반으로 일본·호주 진출을 추진하고, 홍콩을 거점으로 디지털자산까지 아우르는 '미래에셋 3.0' 전략을 본격화하는 모습.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국경 없는 투자’를 외쳐온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이 다시 움직였다. 해외에서 성과를 확인한 미래에셋증권이 일본과 호주로 확장에 나선 가운데, 그 방향은 전통자산과 디지털자산을 통합하는 ‘미래에셋 3.0’ 전략으로 수렴되고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일본과 호주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의향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인허가 절차를 거쳐 증권업 라이선스를 확보하면 법인 설립이 가능해진다. 2017년 인도 진출 이후 약 9년 만의 신규 해외 법인 확장이다.

이번 행보는 단순한 외형 확대가 아니라 이미 확인된 성과 위에서 이뤄진 ‘다음 단계 확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해외법인에서만 4981억원의 세전이익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약 200% 증가한 수치로, 전체

이익의 약 24%를 차지한다. 글로벌 비즈니스가 본격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전환됐다는 평가다.

시장에서는 박 회장이 강조해온 ‘국경 없는 투자’ 전략이 성과 단계에 진입한 이후, 다시 확장 국면으로 넘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래에셋은 현재 홍콩, 미국, 영국, 브라질, 인도 등 9개국에 진출해 있으며, 복수 법인을 포함하면 총 19개 법인을 운영 중이다.

이번에 공략하는 일본과 호주는 ‘수익

형 시장’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일본은 2024년 신NISA 도입 이후 개인 투자 자자금이 증시로 빠르게 유입되며 리테일 자산관리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현지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자산관리(WM)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호주는 세계 최대 규모의 퇴직연금 제도인 슈퍼어뉴에이션 시장을 기반으로 장기 자산이 꾸준히 유입되는 구조다. 글로벌 금융사들이 경쟁적으로 진출하

는 핵심 시장으로 꼽힌다. 미래에셋증권은 호주를 거점으로 연금 기반 자산관리 사업을 확대해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자산운용 부문이 선제적으로 구축해온 해외 네트워크도 증권 사업 확장의 기반으로 꼽힌다. 일본에서는 글로벌X재팬이 ETF를 중심으로 사업 기반을 다져왔고, 호주 역시 글로벌X호주와 스타크릿을 통해 현지 투자 생태계를 확보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운용 인프라가 증권 부문의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글로벌 확장은 디지털자산 전략과도 맞물려 있다. 미래에셋은 전통자산과 디지털자산을 통합하는 ‘미래에셋 3.0’을 핵심 성장 축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그 첫 실행 무대로 홍콩을 선택했다.

미래에셋증권 홍콩법인은 최근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로부터 디지털자산 리테일 라이선스를 최종 승인받았다. 국내 금융사 중 최초 사례다. 이를 통해 홍콩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매매 중개가 가능해졌으며, 모바일 트레이딩시스템(MTS) 내에서 주식과 채권 등 전통자산과 디지털자산을 함께 거

랄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 구축된다.

홍콩은 글로벌 금융허브이자 디지털 자산 산업을 제도권 내에서 육성하는 대표 시장으로 꼽힌다. 중국 본토의 가상 자산 규제 이후 관련 자금과 기업이 유입되며 ‘통제된 개방’ 모델을 구축한 점도 미래에셋 전략과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다.

미래에셋은 이번 홍콩 사업을 시작으로 미국과 싱가포르 등 주요 금융시장으로 디지털자산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통 금융과 Web3 기반 자산을 연결하는 ‘원 플랫폼’ 전략을 글로벌 단위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성준엽 미래에셋증권 홍콩법인 대표는 “전통자산과 디지털자산을 결합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글로벌 디지털자산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도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1분기에는 스페이스X 관련 평가이익이 반영될 것으로 보이며 금액은 1조원 이상으로 예상된다”며 “6월 상장 예정인 스페이스X 관련 평가이익 기대감과 디지털 자산 모델링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zolkova@metroseoul.co.kr



metro

# 이억원 “중복상장 엄격 심사... 주주보호 충실의무 다해야”

〈금융위원장〉

16일 제도개선 공개세미나서 축사  
엄정하고 합리적 심사기준 도입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중복상장 제도개선 공개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모·자회사 중복상장과 관련해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주주보호 기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 허용 방향성을 정립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한국거래소와 함께 중복상장 제도개선 의견수렴을 위한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정부는 중복상장에 대해 엄정하고 합리적인 심사기준을 도입해 원칙 금지·예외 허용 기조를 정립해 나가

강조했다.

주주 충실 의무 이행에 대한 중요성도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심사 강화에 더해 제도적으로도 모회사 이사회가 자신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충실 의무를 다하도록 개선하겠다”며 “모회사 이사회가 중복상장이 주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주주 보호방안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주요국과 비교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중복상장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영미권 국가를 살펴보면 모회사가 자회사 자본 100%를 보유하고 모회사만 상장하는 경

우가 보편적”이라며 “법적 제한이 있어 서가 아니라 중복상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액주주와의 이해상충, 그로 인해 이사회가 짊어지는 법적 책임을 사전 인식하고, 스스로 자제하는 관행이 확립돼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반면 우리나라는 중복상장이 관행적으로 이뤄졌고, 주요국 대비 그 비율도 여전히 크게 높다”며 “그 과정에서 일반주주들은 자회사 성장 성과를 공정하게 향유하지 못했고, 주가 디스카운트를 감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기업들의 미래 성장을 위한 예외 허용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중복상장은 기업이 전문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원천금지될 사안은 아니다”라며 “핵심은 목적과 효과인 만큼 중복상장이 남용되지 않도록 규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중복상장 원칙금지 방안은 새로 도입된 주주 충실의무를 상장 제도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며 “전체 주주에게 공정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상장·인지 ‘상장 이익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비대칭적인 상장’ 인지를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 코스피 뛰는데 외국인 43조 팔았다... 셀 코리아 경고

금감원, 3월 투자동향 발표  
주식시장 3개월 연속 순매도  
유럽·미주·아시아서 자금 이탈

외국인 투자자가 지난달 국내 주식시장에서 43조원 넘게 순매도하며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자금을 빼낸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가 6100선을 회복하는 등 지수 상승 흐름과는 달리 수급 측면에서는 경고 신호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감독원이 16일 발표한 ‘2026년 3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국내 상장주식 43조5500억 원을 순매도했다. 이는 전월(19조5580억 원)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규모로, 기준 최대 기록을 크게 넘어선 수치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43조8880억 원을 순매도한 반면 코스닥시장에서는 3840억 원을 순매수했다. 이로써 외국인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3개월 연속 순매도를 이어갔다.

외국인 보유 규모도 크게 줄었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 보유액은 1576조2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449조4000억 원 감소했다. 전체 시가총액 대비 보유 비중 역시 30.7%로 낮아졌다.

지역별로는 중동에서만 2000억 원 순매수를 기록했을 뿐, 유럽(26조4000억 원), 미주(9조8000억 원), 아시아(5조6000억 원) 등 대부분 지역에서 대규모 순매도가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영국(16조3000억 원), 미국(9조5000억 원) 등이 순매도 상위을 차지했고, 카타르

(5000억 원), 케이맨제도(3000억 원)는 순매수로 집계됐다.

이 같은 자금 이탈은 미국과 이란 간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채권시장에서도 외국인 자금은 순유출로 돌아섰다. 외국인은 지난달 상장채권 5조4420억 원을 순매수했지만, 16조3590억 원을 만기상환 받으면서 총 10조9160억 원을 순회수했다.

지역별로는 미주에서 9000억 원 순투자를 보인 반면 아시아(7조원)와 유럽(3조4000억 원)에서는 순회수가 나타났다. 종류별로는 국채 6조8000억 원, 통화안정증권 2조2000억 원에서 모두 순회수가 발생했다.

허정윤 기자 zolkova@

# 삼성운용, 신재생에너지 ETF 수익률 1위

1개월 13.1%·3개월 48.6% 기록  
최근 한 달 개인순매수 327억 몰려

중동 지역에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자원을 무기화한 이번 전쟁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탈석유 기조가 강화된 점, 인공지능(AI)발 전력 수요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점 등에서 재생에너지 시장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의 투자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다.

삼성자산운용은 KODEX 신재생에너지 ETF가 1개월 수익률 13.1%, 3개월 48.6%를 기록하며 국내 상장한 에너지 ETF 11종(레버리지 제외) 가운데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최근 3개월 수익률은 비교지수(31.5%) 대비 17.1%포인트 초과 성과를 달성했다. 이 ETF는 태양광, 풍력에너지, 수소에너지, 2차전지 등 통상적인 재생에너지 산업뿐 아니라 탄소 저감에 기여하는 모든 친환경 기술 및 관련 산업에 투자한다. 수익률 고공행진에 투자금도 증가해 최근 한 달간 개인 순매수는 327억원에 달한다. 단기 수익률뿐 아니라 2021년 상장 후 수익률 369.7%를 기록했다.

KODEX 신재생에너지액티브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온사이트(On-site) 발전원 관련 기업 비중 확대 전략을 선택했다. 이에 따라 ▲HD현대에너지솔루션, ▲비나텍 등 미국향 매출 확대가 기대되는 기업들이 성과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신하은 기자